

지역 소식통

종자생명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진행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종자생명맞춤형 인력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대와 협력한 '종자산업'가 과정은 6월 26일부터 2주간 진행되어 총 13명이 수료했고, 전북대와 협력한 '미래육종'가 과정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5명의 교육생이 선발돼 중간교과, 분자표지실습 등을 진행 하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기업수요 맞춤형 실습 위주의 현장 중심 교육과 관련 기업방문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미래육종가 과정에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중 고추외육종, 파프리카종묘, 부농종묘를 방문해 각 업체의 전문가에게 육종기술을 배우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통해 채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분자마커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의 실 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필리핀 말로시

계절근로 협약 재체결

완주군이 필리핀 카가얀주 말로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다시금 체결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전날 완주군은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양측 지자체장이 영상을 통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했던 기존 협약에 2023년 법무부 협약서 표준인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필리핀 말로시 근로자 20명이 완주군에서 5개월간 근로를 마치고 행방의 불법이 탐없이 출국한 바 있으며, 이중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성실근로자는 오는 12월에 시설편기 농번기를 맞아 재입국 예정이다. 현재, 완주군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94명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신항만 조기활성화 머리 맞대

김제시, 학술대회 열고

화물유치 전략 등 주제 토의

새만금 신항 개항 대비 일한



지난 16일 새만금 신항만 학술대회가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홍성규 한국국제상학회 회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항만 및 물류 분야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김제시가 (사)한국국제상학회, 김제시항만발전위원회와 함께 2023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신항만 조기활성화 방안과 미래 신산업 정책 발굴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날 김제시에서 개최한 새만금 신항만 학술대회(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 신항 개항에 대비 선사 및 화물유치 전략, 신항만 조기활성화 방안, 미래 신산업 발전 방안' 등의 주제로 항만 및 물류산업 전문가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 및 논의를 진행했다고 김제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선사와 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가 다수 참여해 항만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항만 수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한 항만 및 물류산업 전문가 심포지엄과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가져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정책을 개발, 관계부처와 기관에 정책건의하는 한편, 신항만과 연계한 김제시 미래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항만정책 기조와 최신 트렌드, 항만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항만 관련 된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 신항을 통한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 새만금 신항만 정책 심포지엄은 새만금 신항만 조기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신항만 정책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새만금 신항 특성화 방안' 등이 올해 3월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 안건에도 상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마을방송, 이제 휴대전화로 듣는다

완주군, 전화 마을방송 시스템 10월 중 구축·추진

기존 시스템과도 연동, 그룹별·개별 방송도 가능

완주군이 옥외스피커로 전달하던 마을방송을 휴대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7일 완주군은 552개 마을의 원활한 주민 소통과 예산 절감을 위해 완주형 전화 마을방송 시스템을 10월 중 구축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마을방송은 이장들 중심으로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는 옥외스피커를 이용해 마을의 크고 작은 일과 행정정보, 각종 재해·재난 관련해 주민들에게 전달해왔다.

하지만 방송시설을 갖춘 주택이 많

아지면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컸다. 또한 가정마다 마을방송용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비용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군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장이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방송하는 문자·음성 통합발송시스템과 자신의 휴대전화나 집 유선전화로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완주형 전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전화로 편안하고 신속하게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 청취 하지 못한 내용도

지난 방송 들기로 청취 가능하다.

또한 기존 마을방송시스템과도 연동해 13개 읍면의 통합 방송과 그룹별, 개별 방송도 가능해져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도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롭게 구축된 주택의 방송시설로 마을방송 운영지역 문제와 스피커에 따른 소음문제가 있었다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하면서도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어 군민의 생활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17일 완주군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 · 상호 공동발전 '맞손'

완주군, 전북TP와 협약 체결...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

완주군이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완주군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신기술 창업의 촉진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의 산업, 과학기술 혁신 거점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상호 공동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협업 및 산업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지역기업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기업지원, 기업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추진, 해외 판로개척과 기술력 확보

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이 공동사업 발굴,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에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면서 향후 완주 경제 활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과 지역기반 완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함께 만드는 경제도시 1번지 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앞으로 완주군과 협력을 강화해 수소 및 이차전지와 같은 중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완주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도민체전 출전 김제시 대표선수단 사기 진작

김제시체육회, 종목별 선수들 훈련장 찾아 격려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는 제8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 대표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종목별 훈련장을 찾아 격려했다.

38개 종목에 579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선수단은 사전경기와 2023년 9월 1일부터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고, 굳은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김제시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체육회는 전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회원종목단체장 및 관계자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하여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출전선수들을 격려하고 음료 등을 전달하였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김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종목단체장 및 출전 종목 관계자, 지도자분들의 노고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부상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김제에서 10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대회에 참가하는 김제시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